

## 중요한 것은 역시 스토리다

김 영 진 · 영화평론가

### 대작 특수 노린 총무로의 새로운 고뇌

이준의 감독의 「왕의 남자」는 연말연시 대목을 노리는 극장가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영화였다. 「태풍」, 「청연」, 「해리 포터」 등의 대작들 틈새에서 불우한 패자의 운명을 겪을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예측됐던 이 영화는, 경쟁작들의 간판이 극장에서 다 내려진 후에도 관객들의 놀라운 호응을 얻고 있다. 진작 시나리오가 좋다는 소문이 총무로에 돌고 있었으나 누구도 이 영화가 이 만큼 사회적인 현상으로 부각될지는 몰랐다. 어딜 가나 시중에선 이 영화에 관한 얘기가 화제에 오른다. 이런 추세라면 관객 1천만 명 관람도 가능하다는 성급한 예측도 나오고 있다. 「왕의 남자」가 특이한 것은 세대에 따라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킬 만큼 결이 복잡한 영화라는 것이다. 10대는 극중 광대 공길 역으로 출연하는 이준기에 반해 팬레터를 쓰고, 20·30대 여자 관객들은 이 영화를 독한 멜로영화로 본다. 40·50대는 고급스러운 풍자극으로 이 영화를 받아들이는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삶에 대한 부러움을 느낀다는 얘기를 곧잘 하고 있다.

「왕의 남자」는 대작 특수를 노렸던 총무로에 다시 한 번 복잡한 고뇌를 안겨주고 있다. 영화산업의 가장 큰 역설은 모든 것이 안전해 보였던 영화가 흥행에 실패하고, 기획단계에서 위험 부담이 컸던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는 이변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친구」의 광경택 감독이 연출하고 장동건, 이정재, 이미연이 주연한 「태풍」이 좋은 예다. 한국영화 사상 가장 많은 150억 원이 훨씬 넘는

순제작비를 들인 이 영화는 한류 스타 장동건의 존재감에 분단을 소재로 한 블록버스터라는 점 때문에 제2의 「태극기 휘날리며」가 될 거라는 기대를 모았다. 순제작비가 100억 원에 달했던 윤종찬 감독의 「청연」도 마찬가지다. 3년여의 제작기간이 소요되면서 술한 악소문에 시달리기도 했던 이 영화는 극중 주인공 박경원의 친일 행적 논란으로 개봉 전부터 부정적인 입소문에 시달린 끝에 별다른 주목을 끌지 못하고 극장에서 간판이 내려졌다. 이 두 편의 영화에서 불거리로 내세웠던 특수효과나 기술적 완성도는 제작비 규모 대비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고도 나무랄 데 없는 수준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관객의 스펙터클에 대한 기대를 배신할 만한 완성도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들 두 편의 영화는 각자 편차는 있지만 예상보다 못한 흥행에 만족해야 했다.

### 더 이상 제작비가 대작을 말해주지 않는다

점점 규모가 커지는 한국영화산업은 필연적으로 블록버스터를 제작해야 한다는 당위에 직면해 있다. 치솟는 제작비와 한류 열풍을 타고 몸값이 더 올라간 스타들을 데리고 영화를 찍으면서 내수 시장을 넘어 범아시아권에서도 통하는 대작을 만들어도 성공할 수 있다는 야심은 이 시장에 흘러드는 투자자본에게 좋은 미끼다. 영화 콘텐츠 산업의 잠재적 부가가치에 대한 믿음과 환상이 최근 몇 년간 한국영화의 거품 성장을 주도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작에 도전한 시도는 성공보다 실패로 끝난 것이 더 많았다. 「성

냥팔이 소녀의 재림», 「아 유 레디」 등의 실패작이 몰렸던 2001년에는 심각한 돈가뭄을 충무로에 물고 오기도 했다. 그런데도 이 대박에의 유혹은 뿌리칠 수가 없다. 「태극기 휘날리며」와 「살미도」는 그런 면에서 대작의 가능성에 불을 부은 결과를 낳았으나 이 영화들은 바깥에 알려진 만큼 국내시장의 실적에 비해 해외에서의 반응이 좋은 편은 아니었다. 고비 때마다 한국영화계의 돈가뭄 위기를 구한 것은 중급 제작 규모의 내실 있는 영화들이었다. 「살인의 추억», 「올드 보이」 등은 물론이고 「친구」 등의 흥행작도 실제 제작비는 결코 대작 수준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한국영화계가 대작에의 유혹에 매달리는 것은 이런 시도가 결국은 영화산업의 덩치를 지금보다 더 큰 규모로 키울 수 있다는 '팽창욕구' 때문이다. 올해에도 봉준호의 「괴물」, 강우석의 「한반도」를 비롯해 중국에서 촬영하는 무협영화 「중천」 등이 대작 바람에 가세하고 있다. 지난해 임필성의 「남극 일기」를 시작으로 이명세의 「형사」와 「태풍」, 「청연」 등의 영화가 거둔 미진한 성과를 이 영화들이 올해 어떻게 만회하느냐에 따라 향후 한국영화산업의 전체 규모에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결국 다시 한 번 드는 생각은 일반 관객이 영화로부터 갈구하는 것은 볼거리에 대한 호기심 못지않게 이야기에 대한 충성심이라는 것이다.

#### 이야기에 대한 긍정적 징후, 「왕의 남자」

「왕의 남자」가 좋은 예다. 이 영화는 과거 스타 영화와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단골 소재로 등장했던 연산군의 패정을 소재로 했지만 거기에 새로운 관점을 끌어들었다. 이것은 오리지널 시나리오가 아니라 조선시대 궁중 광대들의 삶을 소재로 지난 2000년 초연돼 화제를 모은 연극 「이(爾)」를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이는 왕이 신하를

높여 부르는 말이다). 『연산군일기』 제60권 22장에 등장하는 궁중 광대 공길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연극 「이」는 연산군이 광대극을 좋아했고 광대 공길과 동성에 관계였다는 허구적 설정에서 출발하는 파격적 발상을 담고 있다. 영화 「왕의 남자」는 연극 「이」를 모태로 하고 있지만 원작과 달리 권력 투쟁에 혈안이 된 공길이 아닌, 또 다른 광대 장생의 시점으로 기술된다.

양반들에게 농락당하던 생활을 거부하고 큰 놀이판을 찾아 한양으로 온 장생과 공길은 한양에서 연산과 후궁 장녹수를 풍자하는 놀이판을 벌인 죄로 의금부로 끌려오지만 특유의 재담으로 왕의 총애를 받게 된다. 이들의 공연에 흠족한 연산은 궁내 광대들의 거처를 마련하고 공연을 즐긴다. 양반을 풍자하고, 후궁을 내칠 수 있는 영향력까지 행사하게 된 남사당패의 공연은 결국 권력 투쟁의 도구로까지 이용되면서 광대들의 운명도 촌각을 다룬다. 여기에 공길에 대한 연산의 알 수 없는 애정과 녹수의 질투, 공길을 사랑하는 장생의 삼각관계가 겹쳐지면서 「왕의 남자」는 견잡을 수 없는 비극을 향해 치닫는다. 개인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조선 당쟁의 희생자였던 연산은 어머니인 폐비 윤씨에 대한 기억 때문에 미칠 수밖에 없었고, 그 광기야말로 창작물의 매혹적인 소재가 아닐 수 없었다. 연산을 또 한 번 그린다는 점에서 「왕의 남자」는 지금까지 기술되어 온 연산의 이야기자, 연산이 아닌 다른 존재를 통해 연산을 기술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기술되지 않았던 연산의 이야기다. 이준의 감독은 역사 속에 천편일률적으로 기록됐던 연산을 지우고 그의 새로운 면을 발견해낸다.

「왕의 남자」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연산을 광대로 해석한다는 것이다. 극중 연산은 광대들의 놀이에 감탄하는 관객의 위치에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 광대가 되려 한다. 자신의 삶 자체를 놀이판



으로 만들고 싶은 그의 욕망은 임금이라는 그의 지위와 관련해 불경스럽게 보일 만큼 조선 시대의 왕과 사대부들의 관계를 마구 비틀어 놓는다. 「황산벌」에서도 그랬지만 역사속의 권력자나 위인들을 평범한 인간의 위치로 끌어내려 묘사하는 감독 이준익의 도발적인 문제의식이 이 영화에서도 기묘한 쾌감을 준다. 텔레비전 드라마 등에서 본 연산의 캐릭터와 정진영이 연기하는 이 영화 속 연산의 캐릭터는 차원이 다르다. 감정을 마구 드러내는 그는 대신들에게도 반말을 하고 녹수와의 곤잘 반말을 주고받는다. 이런 것들은 고중에 문제가 있는 설정이지만 대신 정중하게 포장돼 있던 역사 속 정사를 마구 해집는 반권위주의적 쾌감이 있다. 사대부 정치에 대한 가장 과격한 뜯어보여주기가 된 것이다. 그게 이 시대의 반권위주의적 인 풍토와 맞아 떨어져 관객의 심리적 해방감을 얻어내고 있는 듯이 보인다.

동시에 왕조 권력의 붕괴를 마당극 놀이 형식을 통해 재현한다는 발상도 매우 신선하다. 연산의 캐릭터를 광대로서의 연산이라는 틀을 통해 접근하니까 그의 광폭한 고뇌가 훨씬 인간적으로 다가오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연산이 매혹당하는 공길 캐릭터의 이준기가 내뿜는 옴므 파탈의 매력은 이 영화의 결정적인 흡인 요인이다. 궁궐 내부에서 은밀하게 행해진 동성애의 유혹은 이준기라는 신인배우의 기묘한 성적 매력을 통해 표출되면서 관능성의 분출 통로를 거쳐 권력이 해체되는 위험한 풍경을 별다른 거부감 없이 관객에게 재연해 보여준다. 놀면서 권력을 해체하고 거기서 욕망을 느낀다는 이 전제는 대중문화로서의 영화가 갖는 역할과 절묘하게 합치되고 「왕의 남자」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지만 권력에 대한 풍자의 독침이 있는 관찮은 영화로 만들었다. 연산을 광대기질이 있는 예술가로 놓고 소년 광대와 사랑에 빠지는 설정으로 가져간 것은 이

2006년 한국영화계도 어떤 이야기를 발명하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오갈 것이다. 과거의 역사적 소재나 인물을 스크린에 불러오려는 시도가 부쩍 잦은 요즘, 한국영화계의 화두는 여전히 이야기다. 영화는 20세기의 예술이었지만 근본적으로는 관객의 이야기에 대한 욕망에 충실한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다. 새로운 접근법을 담지 않은 이야기로는 관객과 승부할 수 없다. 그것이 디지털 기술에 힘입어 스펙터클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고 있는 2006년 한국영화계 앞에 놓인 역설적인 과제일 것이다.

영화의 독창적인 해석이다. 역사에 대한 이런 식의 불경한 접근은 그동안 화석화됐던 역사 인식에 부드러운 틈을 열어준다. 돌이켜 보면, 그동안 우리는 너무 경직된 역사 스토리에만 파묻혀 있었다. 비단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공식적 담론에 대해 이견을 제출하는 그런 시도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왕의 남자」가 흥미로운 탈출구 역할을 하는 듯이 보인다. 모든 공식적인 역사에 다른 시각을 들이대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시작되는 긍정적인 징후로 보이는 것이다.

#### 2006년 한국영화계, 새로운 이야기로 진검승부를

결국 2006년 한국영화계도 어떤 이야기를 발명하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오갈 것이다. 남과 북의 병사들이 만나 이상적인 공동체를 꾸린다는 「웰컴 투 동막골」의 성공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한국 관객들은 부정적인 현실에 대해 긍정적 상상력으로 맞서는 영화에 유독 열정적인 관심을 보인다. 「왕의 남자」도 조선조 왕과 사대부의 대결 구도를 광대와 지배계급의 놀이판으로 바꿔 재현함으로써 현실을 슬쩍 초월적으로 넘어선다. 과거의 역사적 소재나 인물을 스크린에 불러오려는 시도가 부쩍 잦은 요즘, 한국영화계의 화두는 여전히 이야기다. 영화는 20세기의 예술이었지만 근본적으로는 관객의 이야기에 대한 욕망에 충실한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19세기의 매체였던 소설과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다. 새로운 접근법을 담지 않은 이야기로는 관객과 승부할 수 없다. 그것이 디지털 기술에 힘입어 스펙터클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고 있는 2006년 한국영화계 앞에 놓인 역설적인 과제일 것이다. ●●●